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

-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민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요 약

1. 관점의 변화: 현실에서 희망찾기

1-1. 기존관점의 한계

- 환원론 - 반민주론, 반신자유주의론
- 양비론 - 진영논리, 증오정치, 싸가지없는 진보
- 대안없는 비판 - 다양한 사회론

1-2. 내재적 비판: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 ‘내재적 비판’이란 현실 그 자체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관점. 이 관점에 입각할 때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세대가 대안세력으로 형성
- 문제는 지지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쉽.

2. 새로운 대중의 출현

2-1. 세계사적인 구조적 변동

-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개인화

- 세계화는 개인과 세계를 직접 대면시킴.
- 정보화는 네트워크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형성.
- 개인화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주체)와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 혁명(자기 표현적 가치)과 결합됨.
- 개인화는 ‘고통의 개인화와 정체성을 다원화’를 만들어내며,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 기반한 정체성의 다원화, 자기표현적 가치의 확대는 새로운 대안형성의 자원.

2-2. 한국에서 새로운 대중의 출현

- 세대분석은 동기집단효과(cohort effect)를 분석하는 것
- 세대갈등은 정보화 효과, 즉 매체변화에 의해 강화됨
- 세대갈등은 문화갈등이다
- 현재의 2040세대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은 민주화, 정보화(세계화), 정체성혁명
- 민주화로 인한 권위의 해체는 현대적 상식을 가진 대중을 탄생.
- 정보화로 인해 합리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자본 형성.
-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결합은 정체성 혁명을 낳음.
- 정체성 혁명은 자기표현적, 자기실현적 개인 형성.

2-3 창조적 세대의 창조적 진보세대로의 전환

- 세대갈등은 정치적으로 2002년의 1차 충돌, 그리고 2010년 지역선거 이후의 2차 충돌
- 2002년의 화두는 정치개혁.
- 2012년의 화두는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쟁 - 창조적 진보세대의 탄생.

2-4. 창조적 진보세대의 이해와 정체성

① 상식

○ 상식이 창조적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

- 상식은 현대(=근대)적인 것.
- 상식에 대한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불공정경쟁’의 심화 때문.

② 다양성과 자기표현, 그리고 창조성

-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진보 - 68혁명 이후 새로운 진보의 특징.
- 다양성이 창조성을 형성 - 한국사회에서 지난 20년간 다양성 확대.

③ 경제적 진보

- 창조적 진보세대는 연대를 지향.
- 이명박 효과가 경제적 진보세력 형성.
- 경제적 진보는 2040세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화두.

3. 새로운 정치균열과 진보의 전략

3-1.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

○ 현실의 갈등은 과거의 단순갈등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

- 정치적 진보는 보다 많은 자유주의를 지향.
- 진보는 대북문제에 있어 안정관리세력.
- 경제적 진보는 보편적 복지, 공정경쟁세력.
- 진보는 다양성, 자기표현적 가치, 창조성을 옹호해야.

3-2. 진보의 전략

-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 새로운 시대에는 혁신적 리더십을 요구
 - 혁신적 리더십의 핵심은 콘텐츠.
 - 지역의 네트워크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를 통한 진보생태계 구축.
 - 행동의 리더십.

4. 함의 및 제안

- 고통이 개인화하고, 정체성의 다원화된 시대에는 공감의 정치가 필요.
- 공감의 정치를 위해서는 대중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 이상의 연구는 혁신적 리더십의 창출을 위해 마이크로타겟팅이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제안.

1. 관점의 변화: 현실에서 희망찾기

1-1. 기존관점의 한계

○ 20세기 말 세계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발생한 신자유주의 등 급격한 사회변동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세계화, 정보화,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무시하거나 다양한 사회변동 중 일부분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환원론

○ 현재 진보진영의 사회를 보는 시각은 크게 ‘반민주론’, 그리고 ‘신자유주의 반대’로 요약될 수 있다.

○ ‘반민주론’은 1980년대식 ‘민주/반민주’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중 정권의 업적인 평화를 결합하여 스스로를 민주평화세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반민주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의해 그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대중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또한 반민주론은 젊은 세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신자유주의반대’는 2010년대 이후 복지논쟁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면서 진보정치세력 내에서 그 세를 확대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반대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 즉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함께 공정경쟁의 문제,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의 문제와 함께 갑을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 반대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대문제를 계급문제 혹은 경제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난 세대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보여주고 있다.

② 양비론

○ ‘진영논리’, ‘증오정치’ 담론은 양비론이다.

- 저널리즘에 주로 등장하는 ‘진영논리’, ‘증오정치’, ‘짜가지 없는 진보’ 등의 담론은 현재의 정치사회갈등, 정치불신, 정치무능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 담론들은 정치권, 혹은 진보정치세력들에 일정한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담론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불신’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양비론은 현실을 고착화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진보적 관점에서 이러한 담론들의 치명적인 한계는 이러한 담론들의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 불신 및 정치무관심을 강화하고, 이것은 결국 현 상황을 고착화하는데 기여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성 제도의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의 역관계가 보수 우위인 현 상태에서 정치, 혹은 기성권력 그 자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대안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안의 부재는 결국 현 상태의 고착화를 방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진영논리는 양비론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에 의해 극복될 수 밖에 없다.

- 양비론이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 즉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등적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치 PC 시대의 MS와 애플의 경쟁이 애플의 네트워크 선점으로 극복되듯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 진영논리는 극복될 수 있다.

③ 대안 없는 비판

○ ‘다양한 사회론’은 비판담론이지 대안담론이 아니다.

- 현재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론’들은 현실비판의 날카로움은 존재하지만,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사회 비판이 지식인의 숙명이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비판담론이 비판의 도구로서는 유용하지만, 대안의 도구로서는 활용성이 없다는 점이다.

○ 비판담론은 대중들의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이러한 비판론의 한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청년담론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고통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만, 이들의 저항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촛불시위, ‘안녕하십니까’ 등의 현상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담론들은 ‘일상화된 절망’만을 보여주는 한계를 갖는다.

1-2. 내재적 비판: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 ‘내재적 비판’이란 현실 그 자체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관점을 말한다.

- 위의 다양한 담론들이 보여주는 것은 현실의 비참함이고, 이것은 비판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불행히도 대안이라는 관점에

서는 한계가 있다.

- 대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변화를 읽어 내야하고, 특히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를 발견해야 한다.

○ 대안의 현실적 주체는 새로운 세대에서 발견할 수 있다.

-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겪으면서 급격히 변동하였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동과 발맞추어 ‘세대갈등’이 나타났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보여준 새로운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야당 혹은 진보적 세력을 선호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보의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진보정치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 진보의 지지층은 꾸준하고 넓다.

-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은 당시의 2030세대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2012년 선거에서도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의 지지기반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제는 지지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쉽이다.

- 문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쉽이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보여지듯이 진보위기의 핵심은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리더쉽의 부재이다.

- 문제는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대중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비판세력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에 기반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새로운 대중의 출현

2-1. 세계사적인 구조적 변동

○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개인화

- 196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포드주의의 쇠퇴 이후, 세계는 급격한 구조변동을 겪었다. 이러한 구조변동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주지하다시피, 세계화와 정보화일 것이다.

-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치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않는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개인화이다.

- 개인화는 사람들의 경험이 장소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든스의 ‘장소구속탈피’로 개념화될 수 있는 이 현상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의해 급속하게 진행된다.

○ 세계화는 개인과 세계를 직접 대면시킨다.

- 전근대사회의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은 ‘마을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다. 근대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민족국가로 확대된다. 하버마스가 주장했듯이,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인쇄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의해 사람들의 경험은 민족공동체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민족 정체성’, ‘민족주의’가 형성된다.

- 세계화는 근대의 핵심적인 사회적 정체성이었던 ‘민족정체성’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험이 민족의 단위를 넘어서면서 이제 개인과 세계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국 프로야구만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프로야구를 보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지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에 따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 정보화와 네트워크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 정보화 역시 개인화를 만들어낸다. 정보화가 만들어내는 개인화의 특이점은 그것이 네트워크되어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된 개인주의(Barry Wellman)가 정보화의 특징이다.
- 정보화가 만들어내는 ‘개인화’는 ‘롱테일법칙’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 과거의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 롱테일 법칙, 즉 과거에는 팔리지 않았던 상품들이 검색비용의 절감에 의해 팔리게 되어 틈새경제가 중요해 진다고 주장했다.
- 크리스 앤더슨의 주장처럼, 인터넷의 법칙은 모두가 동일한 참여와 동일한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파레토함수를 그린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도 점유율과 참여도는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사회와 다른 것은 개방적 참여와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소수의 정체성들 간의 결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만이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정체성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 웰맨은 네트워크적 개인주의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장소 대 장소(place to place)에서 개인대 개인(person to person)의 관계로 변화했음을 통해 설명한다. 과거에 집에 유선전화기 있던 시기에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장소구속적일 수 밖에 없지만, 모두가 휴대전화를 갖는 시기에 이르면 관계의 장소구속성은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실과 같이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과거에는 교실이라는 장소에 구속된 경험을 하지만, 만약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그들을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개인화된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 개인화와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적 주체

- 세계화와 정보화는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신자유주의는 포드주의 시기의 노동관계를 해체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관계의 전면화가 가져온 결과는 ‘고통의 개인화’라 할 수 있다.
-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포드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노동시장의 규제해제를 관철시켜 나갔고, 이것은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이동성의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 집단적인 노동계급 정체성을 파괴해갔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분화, 그에 따른 비정규직 노조, 청년유니온과 같은 노동조합의 분화는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의 분화를 잘 보여준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과정에서의 개인적 적응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란 ‘자기관리적 주체’로 이는 스펙관리라는 말로 잘 드러나듯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인간형을 의미한다.
-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론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자본관계에 철저히 종속된 인간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비참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 개인화와 정체성 혁명 - 자기 표현적 가치와 창조계급(R. Florida)의 등장

-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개인화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 나타난 정체성 혁명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1960년대 서구사회는 노동운동 중심의 구사회운동을 거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즉 환경, 평화, 여성, 성정체성 등의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했고, 이후 이 운동들을 신사회운동이라 불리면서 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 초기에는 사회운동의 흐름으로만 존재했던 정체성 혁명의 유산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기술과 접합되면서 정보화를 촉진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당시의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들의 모임들에서 해커문화라는 새로운 공유문화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정보화를 이끄는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스티브 잡스로 상징되는 이 새로운 사람들은 정보화시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혁명이 단순히 문화혁명이 아니라 경제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웹 2.0의 정신을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말한다. 왜 신자유주의적 독점이 아니라 참여, 공유, 개방일까?, 왜 월드 와이드 웹의 개발자인 팀 버너스리는

자신의 개발품을 공유했을까? 인터넷이 참여와 공유의 공간이라는 이상은 이 기술의 창시자들이 1960년대 정체성 혁명의 자식, 즉 자유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와 고통의 개인화

- 세계화 정보화가 낳은 개인화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혁명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가 개인화에 미친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집단화된 고통, 즉 ‘계급’ 혹은 ‘계층’ 같은 집단적 정체성이 나타나지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고통이 집단화하기 보다는 고통이 개인화한다. 물론 고통의 개인화는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통이 개인화함으로써 저항이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정보화와 정체성의 다원화, 그리고 대안의 가능성

- 정보화가 개인화에 미친 영향은 ‘정체성의 다원화’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시대에는 과거처럼 몇 가지 정체성이 사회전반을 장악하지 않고 아주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한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변동에 근거한다.
- 먼저, 정보화는 정체성을 다원화함과 동시에 개인을 네트워킹화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된 개인주의로의 발전은 한편으로 다양성을 확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간의 연대를 촉진시킨다. 우리나라의 촛불시위나 미국의 ‘점령하라,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더 이상 ‘조직’이 없이도 저항이 가능한 ‘조직없는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새로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둘째,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화에 의해 활성화되는 다양한 정체성의 발전은 무엇보다 ‘다양성의 존중’과 ‘자기표현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조직에는 덜 참여하지만 다양한 풀뿌리 조직 혹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시위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확산되고, 이들

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면 이들 간의 집단적 연대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최근 그리스 총선에서 압승한 시리자의 뿌리가 ‘다양한 풀뿌리 운동’에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잠재력이 풍부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한다.

○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자기표현적 가치는 세계적 흐름이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단순화하면 ‘고통의 개인화’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위로부터의 힘이라면, ‘정체성의 다원화’는 아래로부터의 힘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위로부터의 힘과 아래로부터의 힘이 충돌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위로부터의 힘에는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졌지만 아래로부터의 힘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현재 한국 정치의 불행은 정보화시대의 대중들을 산업화시대의 정치적 리더쉽이 끌고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일치에 기인하고, 이러한 현상은 진보 보다는 보수에게 훨씬 유리한 일이지만 사실상 한국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세상이 점점 ‘창조적인 사회’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더쉽이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로막는 상황이 됨으로서 결국 사회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2. 한국에서 새로운 대중의 출현

○ 세대분석은 동기집단효과(cohort effect)를 분석하는 것이다.

- 특정시기의 세대의식을 파악하는 데는 세 가지 효과, 즉 동기집단효과, 생애주기효과 (life-cycle effect), 시기효과(period effect)가 활용된다.

- 동기집단효과가 젊은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이 특정 세대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연령효과라고도 하는 생애주기효과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의식이 보수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기효과는 특정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특정 세대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대의식은 이 세 가지 효과의 종합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동기집단효과라 할 수 있다. 가치조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잉글하트(R. Inghlart)가 주장하고 있듯이 세대의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기집단효과이다.

- 동기집단효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효과와 시기효과 역시 특정 시기의 세대의식을 파악하는 데는 중요하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40대의 스윙현상은 생애주기효과와 시기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젊은 시기의 경험으로 인해 진보 세력에 친화성을 갖고 젊은 시기에는 야당을 지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진보세력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윗 세대들과는 달리 보수세력에게도 일관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또한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시기의 경우 사람들은 경제적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고 진보세력이 특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지지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세대갈등은 정보화 효과, 즉 매체변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 어느 사회나 세대갈등이 있었고,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유독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세대별로 활용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040 세대가 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반면, 50대 이상이 주로 신문과 TV등의 전통 매체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세대갈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세대갈등이 매체변화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보수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의식에 동기집단 효과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2040세대가 인터넷 매체의 활용을 나이를 먹는다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세대의식은 나이를 먹는다고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령화에 따른 보수화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둘째, 세대효과가 매체의 분리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면 세대갈등의 해소는 매체 다양성 및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과 공중파 및 케이블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은 그들만의 보도를 했고, 다른 진보 언론 및 소시얼 미디어는 보수언론

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이러한 매체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세대갈등의 심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체 다양성 및 언론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세대갈등의 대중적 표출은 2002년에 시작되었다.

- 한국에서 새로운 대중의 출현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것은 2002년 대선이었다. 당시 2030세대는 노무현의 핵심적 지지기반이었다.
- 2002년은 노무현 현상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지만 또한 월드컵의 붉은 악마, 그리고 최초의 촛불시위가 일어났던 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행위 양식 및 사회운동 형태가 한국 최초로 나타난 해다. ‘붉은 악마’는 참여하는 대중, 그리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대중이라는 전혀 새로운 대중의 탄생을 보여준다면, ‘촛불시위’는 정보화시대의 전형적인 사회운동, 즉 ‘네트워크형 운동’ 혹은 ‘조직없는 조직화’형의 운동의 탄생을 보여준다.
- 이러한 현상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저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대중들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대갈등은 문화갈등이다

- 노인 빈곤율이 50%에 이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50대 이상은 보수세력을 지지하고 그 이하는 진보세력을 지지하는가? 앞서서도 주장했듯이 이것은 세대갈등이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문화적 갈등임을 보여준다.
- 문화적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정치갈등으로 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앞서서 이야기 했던 매체변동 및 언론의 비공정성으로 인해 보다 심각한 갈등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의 2040세대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은 민주화, 정보화(세계화), 정체성혁명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을 걸쳐 민주화, 정보화, 정체성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건을 이끌거나 혹은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는 지금의 40대이다. 즉 40대는 민주화, 정보화 1세대이다.
- 한국 ICT 산업의 현재적 주역들은 바로 이들 세대들이다. 이들은 기존 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개척함으로써 지금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 민주화로 인한 권위의 해체는 현대적 상식을 가진 대중을 탄생시켰다.

- 민주화로 인한 정권교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금기의 영역을 해체함과 동시에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김대중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6.15 공동선언으로 인한 탈분단화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과 반공에 대한 금기가 깨어지고, 이것은 1989년에 해체된 세계사적인 냉전의 해체를 한국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무현의 당선에는 이러한 탈분단화로 인해 더 이상 북풍이 가능하지 않는 조건이 큰 기여를 했다.
- 노무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탈권위주의화이다. 전근대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권위의 세속화과정을 밟는다면, 근대사회의 후기근대 혹은 탈근대사회의 전환은 권위의 해체과정이 진행된다. 김대중이 탈분단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신화의 영역을 세속화했다면, 노무현은 탈권위주의화를 통해 모든 세속권력을 공론장에서의 토론의 주제로 개방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소통’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탈권위주의화에 의해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이 명령이 아니라 토론과 소통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민주화의 효과는 기존의 권위를 해체했고, 이러한 권위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대중들은 소통과 토론이 중요함을 배웠다. 이것은 산업사회 및 독재시대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 정보화로 인해 합리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자본이 형성되었다.

- 정보화는 기존의 보수적 공론장의 대체하는 진보적 공론장을 창출했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진보적 공론장들이 형성되었지만 제도적 공론장에서 그

영향은 미비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발전,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보수적 공론장의 언론독점을 해체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진보적 공론장의 발전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사회적 합리성의 향상, 즉 보다 합리적인 대중들을 탄생시켰다.

- 정보화는 또한 다양성을 증대시켰다. 앞의 롱테일 사회학에서 지적 했듯이 인터넷은 집중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독점적 플랫폼과 다양한 틈새의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소위 ‘덕후문화’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의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촛불시위나 안녕하십니까 같이 다양한 정체성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 일베는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화의 부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단선적 발전과정이라기 보다는 언제나 반현대주의적 경향을 발생시킨다.

- 정보화는 또한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토크빌이 주장하듯이 사회자본은 민주적 규범을 가진 결사체를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동창회와 향우회로 상징되는 연고주의적 결사체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익명성 및 취향의 공동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권위주의 없는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한 민주적 규범의 생활화 및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촛불시위 등에 다양한 취미공동체가 참여했던 사실은 정보화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증명한다.

○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결합은 정체성 혁명을 낳았다.

-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는 한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시기이고, 또한 다양한 소수자 문화가 태동하는 시기이다. ‘건축학개론’, ‘응답하라 1994’, ‘무한도전의 토토가’와 같이 1990년대를 호명하는 문화현상이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것은 이 시기가 새로운 문화, 정체성의 출발기이기 때문이다.

- 민주화는 1990년대 대중소비문화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문화혁명을 낳았다. 민주화가 문화혁명을 낳는데 기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열의 철폐로 상징되는 문화영역의 분화이다. 문화가 자기 독자성을 띠게 되면서 서태지 현상으로 출현되는 새로운 대중가요를 낳았고, 이것은 ‘신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담론을 형성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 민주화의 또 하나의 효과는 세계화였다. 특히 해외여행자유화 이후의 폭발적인 해외여행의 증가 및 대외 교류의 확대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방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 정체성 혁명은 자기표현적, 자기실현적 개인을 형성했다.

- 근대 산업사회의 윤리가 자기 절제라면, 후기 산업사회의 가치는 ‘자기표현’ 혹은 ‘자기실현’이라 할 수 있다.

- 정체성 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새마을 운동 시기의 근면, 자조 같은 자기 절제의 가치 보다는 즐김, 자기표현과 같은 자기실현의 가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할 정도로 즐김의 문화, 자기실현의 문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경향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후기근대의 가치 혹은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2-3 창조적 세대의 창조적 진보세대로의 전환

○ 세대갈등은 정치적으로 2002년의 1차 충돌, 그리고 2010년 지역선거 이후의 2차 충돌

- 민주화 이후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노무현 현상과 안철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과 안철수는 각각의 시기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소위 ‘현상’을 만들어 냈다.

- 이 두 현상은 공통점이 있다. 두 지도자 모두 상식과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점, 보다 민주적이고 탈권위주의적점, 네트워크적 정체성 지향을 가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 2002년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다.

- 노무현현상의 핵심은 상식과 원칙이었고, 노무현은 이것을 정치개혁으로

이해했다.

- 정치개혁은 2000년 총선연대의 영향으로 당시의 화두였고, 노무현 역시 지역감정이라는 비상식적 감정의 희생자 혹은 극복자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

- 정치개혁은 2004년 오세훈 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개혁이 정치개혁, 특히 제도 개혁 및 지역감정타파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책정당의 형성이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개혁의 종극적 목표인 사회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 민주화 시기 대중의 민주주의 요구에는 ‘민주주의를 하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잘 살 수 있다’는 이중적 욕망이 내포되어 있는데, 노무현은 정치개혁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사회 양극화의 심화가 보여주듯이 경제사회개혁에는 실패함으로써 한계를 보였다.

○ 2012년의 화두는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쟁이었다.

- 안철수 현상의 핵심 역시 상식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안철수에 대한 희망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개혁 및 사회개혁(경제민주화, 공정경쟁 및 복지국가)이었다.

-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은 한국에서 최초로 진정한 이념갈등(경제적 갈등)이 나타난 선거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경제적 진보세력이 형성되었다.

- 안철수는 이명박 효과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창조적 진보 세력의 욕구(합리적, 자기표현적 가치에 더해진 경제적 진보)를 과거 노무현식 대안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2-4. 창조적 진보세대의 이해와 정체성

○ 새로운 세대의 이해와 정체성은 상식, 다양성과 창조성, 경제적 진보로 요약된다.

① 상식

○ 상식이 창조적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동시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동시적 공존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과정을 통해 전근대/근대/탈근대(후기현대)적 현상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상황을 겪고 있다.

○ 상식은 현대(=근대)적인 것이다.

-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아노미 현상처럼 급격한 사회적 변동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특정세력에 의해 현대사회의 핵심적 특징인 분화가 지속적으로 통제된다면 다시 말해서 ‘분화와 탈분화가 동시진행’된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은 급속한 산업화의 신화로 인해 위로부터의 전근대적인 연고주의, 산업사회적 권위주의가 아래로부터의 능력주의, 탈권위주의와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 상식이란 현대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개인주의의 확대, 능력주의원리의 확립, 권위주의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상식이 현대적인 가치의 확립을 요구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상식에 대한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불공정경쟁’의 심화 때문이다.

- 상식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경쟁’이 보수 집권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나타나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현상’,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그리고 다양한 갑의 횡포 등은 대중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면서 상식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 갤럽의 부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한국갤럽데일리 오피니언, 2014.3.24.-27), 우리나라사람들은 부자들 중 존경할만한 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부자 중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 19%, 그렇

지 않다 66%), 기존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부정한 방법 63%, 노력/능력으로 23%)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본인 40%, 부모의 재산 53%)한다. 특히 2040세대는 평균보다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 법률소비자 연맹이 2014년 4월 28일에 발표한 대학생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77.7%나 동의해 그렇지 않다 22.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법원과 검찰이 불공평한 편인가라는 질문에도 50.3%가 그렇다고 대답해 반대 42.2% 보다 많았다.

② 다양성과 자기표현, 그리고 창조성

○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진보이다.

- 세계화, 정보화, 정체성 혁명 이후 세계사적으로 진보에 대한 정의는 수정되었다. 과거의 진보가 보다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라면, 새롭게 나타난 진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표현의 가치를 존중한다.

- 구좌파 혹은 구사회운동이 노동자 단일정체성, 노동운동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신좌파 혹은 신사회운동은 여성, 환경, 평화, 성소수자 운동이 보여주고 있듯이 다양한 가치의 인정이 핵심이다.

○ 다양성은 창조성을 만든다.

- 리처드 플로리다의 연구에 따르면, 실리콘 벨리로 상징되는 미국의 중요한 창조산업지역들은 ‘다양성지수’가 높은 곳에서 발전하였다. 이는 새로운 핵심산업들이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며, 창조성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발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자기표현적 가치는 내재적 동기에 움직인다. 내재적 동기란 결과에 따른 보상에 만족하는 외재적 동기와 달리 과정 자체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활동은 보상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게 되고, 이러한 활동들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기술경제적 환경에서 보다 많은 창조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 한국사회에서 지난 20년간 다양성은 확대되었다.

- 다음의 표 1), 표 2)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대단히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창조적 진보세대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대단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 2013년 6월 4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발표한 동성애에 관한 조사(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에 따르면, ‘사회가 동성애를 용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찬성39%, 반대 59%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우 2007년 조사에 비해 찬성비율이 21%나 늘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극적으로 수용비율이 증가한 나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세대간 동성애에 대한 관점 국제비교

% 동성애가 용인되어야 하는가	18-29	30-49	50+
미국	70	64	52
영국	79	82	71
프랑스	81	79	74
중국	32	19	15
일본	83	71	39
한국	71	48	16

출처) 퓨리서치센터, 2013

- 표 2 역시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의 다양성 수용도가 높아졌음과 동시에 세대간의 차이가 역시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은 동성애 용인도 보다 훨씬 높은 다양성 인정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2030대가 과반 이상의 찬성을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표 2) 세대간 동성결혼에 대한 관점 시기별 비교

	조사완료 사례수	조사할당 사례수	동성결혼 법적허용		
			찬성	반대	모름/응답 거절
2001.6.23-7.2	1520	1520	17	67	16
2013.4월 1주	1224	1224	25	67	8
2014년 12월 2주	1005	1005	35	56	8
연령					
19-29세	181	174	66	28	6
30대	181	192	50	41	9
40대	203	224	35	59	6
50대	203	166	19	72	10
60세 이상	237	215	13	76	11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143호(2014년 12월 2주)

○ 2015년 한겨레 신문의 신년여론조사(2015 신년조사(일반국민)보고서)를 보면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젊고 진보적일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 않은 층보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 일반적인 경우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개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삶에 대한 만족을 단순히 경제적 만족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희망하는 사회상으로 20대가 특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 만족, 자기 표현의 가치가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③ 경제적 진보

○ 창조적 진보세대는 연대를 지향한다.

-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bowling alone*에서 개인화는 기존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특히 정당 및 노조와 같은 조직에 대한 참여를 줄이고, 이는 사회자본의 감소와 그로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대변수와 TV를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주장했다.
- 잉글하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치조사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탈물질적이고 자기표현적인 가치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 정보화의 발전은 새로운 세대들의 연대적 활동을 강화하는 도구를 마련해주었다. 인터넷이라는 거래비용이 아주 적은 도구의 발전은 이들의 다양한 공유적, 연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낳았다.

○ 이명박 효과가 경제적 진보세력을 만들었다.

- 민주정부 10년의 기간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를 하였지만, 신자유주의 및 사회양극화의 심화라는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 민주화로 인해 탄생한 창조적 세대들은 노무현 정권 이후 잠시 수면 아래가라앉았다가,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연고주의적 관행에 분노했을 뿐 아니라 노골적인 부자중심정책에 분노하면서 새롭게 세대적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 이명박 정권의 실정, 특히 경제적 고통의 심화로 인해 창조적 세력들은 창조적 진보세력으로 변화한 것이다.
-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후 2040세대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 경제적 진보는 2040세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화두이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보수세력에 의해 주장되었다는 사실, 최근의 ‘증세논란’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복지철회가 불가능함을 언급한 사실 등은 경제적 진보가 우리 시대의 화두임을 보여준다.
- 한겨레 2015년 신년조사 중 향후 희망하는 사회상을 보면, 10년 전과 비

교해 평등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연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 향후 희망하는 사회상

	힘없는 사람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2014	28	47.3	14.8	8.6
2004	22.5	37.3	31.9	6.4

출처) 2015 한겨레 신년여론조사(일반인) 보고서

- 표 4)은 정부의 경제,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이 조사는 갤럽의 2012년 1월 2주의 조사결과, 즉 경제성장 31%, 복지 62%에 비하면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40세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정부의 경제,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방향			정부의 복지정책과 세금		
	경제성장	복지	모름/응답거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세금을 더 내야하면 현행수준 유지	모름/응답거절
전체	58	36	6	41	48	11
19-29	39	59	2	47	47	6
30대	44	53	3	45	41	14
40대	59	35	6	42	47	11
50대	76	20	3	33	58	9
60대 이상	68	17	14	37	48	15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148호(2015년 1월 4주)

3. 새로운 정치균열과 진보의 전략

3-1.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

○ 현실의 갈등은 복합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는 민주화, 정보화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급격하게 변화했다. 따라서 과거의 민주/반민주, 자본/노동, 규제/탈규제 등의 이분법만으로 현실의 진보와 보수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 새롭게 나타난 대중의 요구, 즉 창조적 진보의 관점에 의해 보수와 진보를 재규정하면, 진보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정경쟁과 복지국가, 사회문화적으로는 창조적인 네트워크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정치적 진보는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 1980년대 까지 민주/반민주의 프레임하에서 민주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면 진보는 민주화, 정보화가 낳은 개인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 통진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프레임의 가장 부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소통/불통, 권위/탈권위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곳에서 진보가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소통과 탈권위이고, 이것은 보다 많은 자유주의를 요구한다.

- 자유주의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넘어, 국가의 시민사회 및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정치적 자유주의는 규제 및 규제해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구진보는 규제만을 주장했지만, 창조적 진보는 특권층에 의한 ‘과소경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진입장벽의 해체와 공정경쟁을 주장하는 규제해제를, 중산층과 서민들의 치열한 ‘과잉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한다.

- 정치적 자유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액티브 X, #메일 등 정부의 산업사회적 ICT정책은 오히려 한국의 ICT산업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중심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진보는 대북문제에 있어 안정관리세력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이제 통일은 단순히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 진보는 추상적인 통일대박론을 현실화하면서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대북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안정세력/모험세력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발전 및 인권 수준에 비추어 대북갈등은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해치는 일이다. 남북한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 피해를 알려나가면서 진보는 스스로를 안정세력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 진보는 보편적 복지, 공정경쟁세력이다.

- 최근의 증세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주요한 갈등은 신자유주의/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규제없는 노동시장/규제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다.

-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장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는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경쟁/공정경쟁(갑을관계, 골목상권, 삼성동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행에 뿌리박혀 있는 불공정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성장동력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성될 수 없으며,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유일한 고용창구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 진보는 다양성, 자기표현적 가치, 창조성을 옹호해야 한다.

- 이제 문화는 단순히 생활양식이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새

로운 시대의 가치, 즉 네트워크적 정체성, 자기표현적 가치, 다양성의 인정은 창조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동인이 되고 있다.

-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징은 급속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연고주의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수의 문고리 권력, 진보의 계파정치 등은 기성정치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행태가 창조적 진보세대의 그것과 시대적 불일치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새로운 진보는 사회문화적 진보성을 옹호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 및 자기표현적 가치의 옹호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즉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보의 지속적인 지지기반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3-2. 진보의 전략

○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쉽이다.

- 이상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가치 및 정체성을 가진 대중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 및 대중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쉽으로 인해 진보정치세력의 집권이 좌절되었음을 보여준다.

- 창조적 진보세력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예외적인 정치 현상, 즉 노무현 현상과 안철수 현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노무현 현상은 당시 2030세대의 상식, 합리성에 대한 요구를 표현했다면, 안철수 현상은 창조적 진보세대의 상식, 다양성, 경제적 진보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 노무현 혹은 안철수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가 하나의 현상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매력을 떠나 이들이 새로운 시대 및 가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상징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의 당선은 그가 시대적 요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대적 요구, 다시 말하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 가치,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에는 혁신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 시대와 사람들이 달라졌다면, 그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형식 및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혁신적 리더십이다. 이것은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조직,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혁신적 리더십은 정책적으로는 아이폰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조직적으로는 앱스토어와 같은 진보생태계를 구축하며, 행동에 있어서는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 혁신적 리더십의 핵심은 콘텐츠다

- 다매체 시대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 애플의 성공이후, 애플의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기실 중요한 것은 애플의 주위로 수많은 개발자와 소비자를 모이게 한 아이폰이라는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당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라 매력적인 혁신적 리더십이고 혁신적 리더십은 매력적인 콘텐츠에서 나온다.
- 정당이 매력적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중들의 이 콘텐츠를 스스로 재생산하고 소비할 때 정당에 대한 신뢰 및 지지도는 상승될 수 있다.

○ 지역의 네트워크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를 통한 진보생태계 구축

- 정당은 무엇보다 진보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플랫폼 정당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이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의 네트워크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이다.
- 기존의 정당들은 중앙단위, 부문단위 조직화에 열중했다. 이러한 거대 조직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네트워크링 작업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고통이 개인화되고 정체성이 다원화’되는 시대에는 보다 다원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네트워크화’ 혹은 ‘풀뿌리의 네트워크화’는 새로운 시대의 조직 형성작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역의 네트워크화’ 만큼 중요한 작업이 ‘네트워크의 지역화’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이동이 활발한 경우, 특히 도시지역일수록 초기 접촉의 형태는 네트워크를 통한 가능성이 높고, 이에 기반하여 온,오프라인의 결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지역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 행동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쉽이 명령의 리더쉽이라면, 산업화시대의 리더쉽은 토론형 리더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보화시대의 리더쉽은 행동의 리더쉽이다.
-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낙선을 각오하고 부산에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행동이 ‘지못미’ 현상을 통해 노무현 현상으로 발전한 것은 이 시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이러한 직접행동을 방송하고 토론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현상은 정보화 시대에는 행동하는 리더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단히 영향력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직접행동은 사회운동에도 일반적이다. 촛불시위에서 안녕하십니까 까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회운동은 모두 직접행동에 기반한 것이었다.

4. 합의 및 제안

- 고통이 개인화하고, 정체성의 다원화된 시대에는 공감의 정치가 필요하다.
-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감의 정치’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진보는 대중들의 생활에 공감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활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 생활정치는 경제적 진보(경제적 삶의 질의 향상, 복지국가), 정치적 진보(보다 많은 민주주의, 직접참여의 확대), 문화적 진보(보다 많은 자기결정, 창조적 삶)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진보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고통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생활의 요구에 공감할 때 보수와 진보간의 파국적 균형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 공감의 정치를 위해서는 대중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고통이 개인화되고, 정체성이 다원화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거시범주들, 즉 계급, 민족, 지역과 같은 범주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시민운동 및 민중운동의 분화는 거시범주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조, 청년유니온 등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노동 역시 다양한 이익과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리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이익 및 정체성이 다양화되었다면, 보다 세심하고 복잡하게 이익 및 정체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정체성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익 및 정체성간의 갈등을 확인한 이후에야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의 연구는 혁신적 리더십의 창출을 위해 마이크로타겟팅이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고통이 개인화되고 정체성이 다원화됨에 따라 과거 중심적이었던 집단적 정체성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존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개념 및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앞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전통,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화의 과정 역시 단일한 과

정이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중들의 이해 및 정체성에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한국의 정책 및 선거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마이크로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세밀하고 미시적인 연구를 생산하지 못했다. 특히 진보정치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을 압도함으로써 급변하는 대중들의 이해과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했다.

- 공감의 정치와 혁신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직업, 소득, 세대, 지역, 성, 취향 등을 복합적으로 관통하는 새로운 경험적 연구와 이에 기반한 정책형성 만이 진보의 집권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